

향기로운 예물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공인석(김명숙), 김경태, 김근봉, 김순석(임영득), 김정배(임승주), 김정환(임영미), 김춘화, 김희규, 박군자, 박현석(권희정), 밤현숙(신영선), 석형기(이희순B), 송부현(김영진), 안아용, 오영순, 윤병호(양영옥), 윤정호(유옥자), 윤조훈, 이기자, 이상현, 이일로(박현숙), 이종문, 이호준(안금자), 임영자, 임현희, 장명원(김옥자), 장명환, 정온천, 채희춘(황영옥), 전세력(영영분), 최선미, 최정란, 흥정훈.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윤희진, 최유경, 강봉석, 김경열, 김근봉, 김명숙, 김순석(임영득), 김영진, 김정자, 김준구(이소은), 박부웅, 박순자, 방현숙, 순정아, 송순랑, 안금자, 안아용, 이기자, 이일로, 이종문, 임승주, 임영자, 장명원, 조옥자, 채명엽, 최성현(윤정자), 최정란, 현웅건(이윤옥), 바울남전도회, 무명.

감사헌금

이필례, 강희숙, 김병율(이영숙), 김수자, 김재인, 김정기, 김정배(임승주), 김준구(이소은), 나미경(장사목), 맹관순, 박복례,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영식(성미영), 박영애, 박종상(이영원), 박충자, 박춘화, 박현석(권희정), 백경자, 석형기(이희순B), 안아용, 양영옥, 유호근(손명화), 이강우, 이미향, 이상규(이미영), 이순애, 이월숙, 이지은, 이창규(곽정순), 이항교, 이효숙, 전순봉, 전영선, 정기성(심순옥), 채희춘, 최선미, 최승영, 최원자, 최정란, 최효자, 황영옥, 무명.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례, 김민성, 김수현,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승예, 이인숙,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무명.

월정헌금

신현진(이은경).

주간 성경연구,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2014년 제 12주 : 사무엘하 1 - 23장

주 일	사무엘하 1 - 5장		
월요일	사무엘하 6 - 8장	목요일	사무엘하 15 - 17장
화요일	사무엘하 9 - 11장	금요일	사무엘하 18 - 20장
수요일	사무엘하 12 - 14장	토요일	사무엘하 21 - 23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전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민순

은퇴장로 오만식 윤창식 방현숙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사 윤희진

전 도 사 김성중 이필례

교육전도사 이승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산나 : 김안나 시온·에덴 : 최원자 엔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해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롯 김민지

슬리스트 김안나 김혜진 고광훈 장명환 고승진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집트 : 김신숙 수리남 : 안서렬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A X 국 : 박동원 김명화 A X 국 :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2014. 3. 16. 주일 예배 설교

함께 살고자 함이라

본문 : 고린도후서 7장 2 - 4절

설교 : 이진우 목사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7장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가 이제 다 풀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며 다시금 하나님가 되길 소망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듯이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3절)

1)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사도바울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죄한 사도 바울을 혼방하며, 헛된 소문과 악한 비평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사도바울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권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혹은 이 본문을 읽은 우리까지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무정함과 쉽게 변절한 그들에 대하여 사도바울이 질책하며 꾸짖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정죄하여 꾸짖고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사도바울 자신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신학자 렌스키는 “우리끼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향하여 살아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주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 얻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요, 이에 대하여 신학자 풀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생사를 초월한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항상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도록 청진했고, 남을 해롭게 하기는 커녕 항상 남을 유익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절 깨끗할 뿐 아니라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노력하여 동행하는 자들까지 성겨웠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점이 되지 않도록 힘써 행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허비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사도바울에 대하여 혼방하고, 악선전을 하며, 비방하고, 비난하며, 곤란에 놓이게 하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냉혹함을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권하고 있습니다.

3) 참 사랑은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사를 같이한다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요 우리는 그 자체로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먼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벧전 4:8)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사도바울의 인생 철학이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유품을 다 놀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서로에게 먼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저 약속이고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심자기라는 현실로 보여지는 사랑으로 드러났음으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장 귀하에 여김으로 서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요일 3:16-18, 요일 4:10) 말씀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자기희생입니다. 이렇듯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그들을 사랑하며 비록 혼방하고 고름개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에 여기는 긍휼과 인자의 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에 여기며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견순으로, 우리의 두 손에는 섬김으로, 우리의 발은 봉사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실천적인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 운명공동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봄된 교회의 자체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더욱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나만 살면 되지”라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서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신앙공동체, 사랑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심자가 사랑으로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살기 위하여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12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I will worship you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동산의 생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 목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3 마길 18(개봉동)
- 18 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총회주일”		
(1부) 오전 7시	사회: 배 경 철 장로	
(2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사	
복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1부] 찬송가 254장	다 같 이 (Praise) 내 주의 보혈은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윤 영 준 집사	
	(2부) 배 경 철 장로	
성 경 봉 독	고린도후서 7장 2-4절	심 순 옥 권사 (Scripture) [신약 P282]
찬 양 대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 200장)	다 같 이
	[2부] 예수 내 구주(정윤용)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이 진 우 목사 (Sermon)
헌 금 봉 헌	[1부] 내게 있는 향유 융합	다 같 이
	[2부] 시선(김병선)	브 라 카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현 기 도		이 진 우 목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사 (Announcement)
찬 양	[1부] 찬송가 445장	다 같 이 태산을 넘어 힘곡에 가도
축 도		이 진 우 목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찬송가 351장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윤 정 호 장로
복 도	할렐루야찬양대
성 시	시편 9편 1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 다 같 이
기 도	박 부 웅 집 사
성 경 봉 독	잠언 4장 20-27절(구약 p.914) 사 회 자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지혜의 훈계 이 진 우 목사
광 고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다 같 이
축 도	이 진 우 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사회: 이 진 우 목사
찬 양	시 은 찬 양 대
기 도	[다음 주: 이향교 권사] 박 현 숙 권사
설 교	김 성 종 전 도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30 제 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 교육관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9:30 유 초 등 부 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0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 멤 나 무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 멤 나 무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송 망 부 (경로대학)	토요일 오전 10:30 제 교육관
전도팀모임	목요일 오후 2:00 제 교육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소식

◎ 광고

● [총회주일]

오늘(23일)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주일 현금은 세례교인당 1만원입니다.
※총회주일현금은 세례교인이며, 1년에 한 번 현금하는 것으로 총회발전과 교육, 목내전도, 선교, 복지, 은급, 출판 및 센터운영, 신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남녀전도회 회장단 모임]

여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2부예배 후 사무실에서,
남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오후 2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21일) 금요기도회는 “소망3초원” 주관입니다.

● [2014년 춘계대성방]

2014년 춘계대성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5일(화): 믿음2, 충성2초원(2가정)
3월 26일(수): 사랑3초원(5가정)
3월 27일(목): 믿음2초원(9가정)
3월 28일(금): 충성2초원(3가정)

● [춘계 성례식]

- 학습・세례・임교・유아세례 문답공부: 23일, 30일 오후 2시 / 로뎀나무
- 문답식: 4월 5일(토) 오후 6시
- 세례식: 4월 6일(주일) 2부 예배
- 성전식: 4월 13일(주일) 1.2부 예배

● [다니엘새벽기도회]

일시: 4월 1일(화)-21일(월) 새벽 5시 장소: 본당

● [3월 행사]

3/ 4일(화)-4/11일(금)	춘계대성방
23일(주일)	총회주일 / 학습 세례 임교 공부
30일(주일)	학습 세례 임교 공부

○ 모임

이번주	다음주
•여전도회 회장단모임(2부예배 후/사무실)	
•남전도회 회장단모임(오후 2시/사무실)	
•지휘자 반주자모임(찬양예배 후)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 방봉사	교 회 청 소
이번주	김병율 장로, 이영숙 권사		방석태 장로/ 김순석 집사	김종진 집사	시강2-고혁 4 사랑3-부천 1	에스더
*떡은 박영식, 성미영 집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딸 결혼)						
다음주	오택현 집사	최봉순 권사	김민혁, 민서,	송백현 권사	충성1-목동일산 충성2-평촌천안	드보라

○ 교우소식

* 서재희 권사(김영구 집사 처, 사랑2 개봉2) 구로고려수재활병원 1302호 입원

순 서	1 부	2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3월	기 도	기 도	찬 양	예 배
1주(2일)	장윤주 집사	김병율 장로	최귀남 권사	김병율 장로
2주(9일)	총정훈 집사	최기훈 장로	이연숙 권사	유현호 집사
3주(16일)	박부웅 집사	윤정호 장로	서재희 권사	윤병호 장로
4주(23일)	윤영준 집사	배경철 장로	심순숙 권사	윤정호 장로
5주(30일)	박권제 집사	임만순 장로	임영득 권사	최기훈 장로
예배안내	이일로 천세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박종삼 집사	이향교 권사